

##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둘째 주로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 :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sup>9</sup>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KJV)**

**So you should pray like this: (NKJV)**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자, 먼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영어로는

<sup>9</sup>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ye (KJV)** 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manner 를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것은 ,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방법, 그 자세이기 때문에, 그 매너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할 때 생기와 능력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먼저 구하는 것, 여기서 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 :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기도의 정신이란 것을 깨달은 사람은 복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자기 부인입니다.

바로 이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절대적인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는 극한 상황에서,

마태복음 26 :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바로 너희도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있어서 왜 자기 부인이 필요한가에 대해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 :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이 고백은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체는 우리의 몸, body 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Flesh, sarx 를 말합니다. 육은 ‘아담이 타락한 본질’ 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아담은 이 자신의 타락한 본질인 육을 후손에게 상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모두 육입니다. 육적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적 상태에 있는 인간의 내면 상태를

마가복음 7 :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마가복음 7 :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마가복음 7 :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육적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고상하고 선한 일을 하여도, 다 한가지로 죄적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 한 후에도 육은 강한 힘을 가지고 성령에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 가게 됩니다. 이 갈등을 묘사한 말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갈등은 괴로운 것이지만 이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영과 육의 싸움에서 때론 승리하기도 하고 때론 패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신앙 생활을 취해서는 육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6 : 24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육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 : 3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0 :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 :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눅 14 :26-27)

저는 얼마전 인생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책은 호스피스 의 창시자가 썼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골자는 ‘네가 임종의 순간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 그 일을  
찾아 지금 현재 그 일을 하라’ 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지금 죽어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막 죽어 가면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해보고 죽는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바깥니다. 요사이 성인병인 당뇨병은 몸무게만 줄이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환자에게 몸무게를 빼라고 권하면 사람들은 다이어트는 하려하지 않고 살이 빠지는 약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은 계속 싹껏 먹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날 자기 부인의 교리가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기독교인 중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 부인을 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바울의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자기 부인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 : 32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세가 전부이므로 현세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 : 33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면서

고린도전서 15 : 31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 이것이 “오늘을 즐기자” 하는 사람에 대한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영적 삶을 위하여,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 2. 자기 부인의 목표 :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 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하는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본래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

이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의 본래의 모습이요, 여러 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가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스도는 인성으로는 우리와 철저히 똑같은 분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완성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성취된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 :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도달하려 하는 궁극적 도달점은 무엇입니까?

3. 자기 부인의 완성(옛사람에서 해방):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

만약 인간이 자기에게서 해방을 누릴 수 있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기쁨이 따라 옵니다.

이교도들이 말하는 해탈이나 무아지경은 모두 자기에서의 해방, 즉 자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방법으로 자유를 찾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이 말하는 자유의 경지는 아직도 육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 : 20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골로새서 2 : 21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골로새서 2 : 22 (이 모든 것은 쓰는데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골로새서 2 : 23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기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을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서 찾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가 **이성일위**입니다.

**이성일위는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있으나,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는 인성이 신성에게 완전히 굴복하여 하나의 위격(=인격)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성은 완전히 성령께 굴복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동은 성령의 발현입니다. 인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8 :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 :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7 :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 :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기쁨이  
옵니다.

여기에 도달하게 될 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한 고백이 있게 됩니다. ,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위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계실 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 가라, 교회당에 가서 살아라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합니다. 구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고백이

시편 91 : 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편 91 : 2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시편 91 : 5 너는 밤에 놀렘과 낮에 흐르는 살과

시편 91 : 6 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91 : 9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시편 91 : 10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 : 14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 : 15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 : 16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우리 신앙 생활의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이 이룰 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수고의 목표를

로마서 8 :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도달하신 거기에 도달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선교 선언을

누가복음 4 :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가복음 4 :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8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참 자유의 상태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3 :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자기 부정으로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이 곳입니다.

이와 같이 참다운 행복과 기쁨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옵니다.

마가복음 10 :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마가복음 10 : 30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견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 4 . 어떻게 도달하나 ? 기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대한 자유에 도달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기 부정의 방법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하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사람에게서 해방되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 해야 합니다. 그 강력한 옛사람의 밧줄을 끊는 것은  
기도 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 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대한 자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계속하여,

로마서 8 : 5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로마서 8 :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 :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 :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영적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영의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경험하셨겠지만 영의 일을 지속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니까?

진지하게 신앙 생활을 하려 하는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감합니다.

우리는 상실된 영적 주권을 되찾지 않으면 영의 생각을 집중하여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영적 주권을 되찾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육적 생각을 벗어나 영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양이 바로 영적 주권이 회복된 양입니다.

상실된 영적 주권이 회복한 양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향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잡생각을 하지 않고 영적 사실에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 분들에게 저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경건한 사람들의 여러 책을 읽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저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분들에게 저녁 기도 보다 새벽 기도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 :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병기가 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경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먼저 드린 후 하나님으로 부터 공급함을 받아 병기가 되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하기 전에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프를 연주할 때, 사울을 괴롭히고 있던 악귀가 떠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정신을 집중하여 부를 때 우리는 점점 영적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침 기도 때에는 꼭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보혈 찬송에서 시작하여 승리의 찬가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찬송을 계속 부르는 것은 집중을 위해서입니다.

요사이저의 사역을 위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기도 기도 하는데 약 30분 정도는 찬송에 할애합니다.

이렇게 집중을 하여 찬송을 부르고 나면 기도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잡아 주시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계속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신이 흩어질 때마다 집중하여 바로 돌아 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 : 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린도후서 10 : 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후서 10 : 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 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라.

인내를 가지고 집중의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안에서 영적 주권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점 이루어져 갑니다.

이 공부를 하신 분은 꼭 공부를 하신

주기도문강해 web-page 로 가셔서

공부를 하신 타이틀의

Like Button 을 눌러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 Like button 을 누르지 않으셨으면 다음 공부로 가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Eg. 만약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공부하셨으면

인터넷 브라우저의 좌측 상단으로 가셔서



를 누르시면 주기도문 강해 web-page 로 돌아 갑니다.

거기에서 주기도문 강해 서론을 설명한 내용 하단에

Like Button 이 있습니다.

모든 타이틀마다 다 Like Button 이 있습니다.